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터전 조성한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사태 예방 위해 사방사업 추진... 지난해 대비 62% 증가된 306억원 예산 투입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306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80개소, 계류보전 21km, 산지사방 10ha, 산림유역관리 4개소 등 사방시설을 신규 조성한다.

지난해 사방사업 예산 189억 원 대비 62%가 증가한 수치다.

이는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터전을 조성하겠다는 전북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토석류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생활권 연결 지역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방댐 등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이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사방댐(에코필라) 모습.)

실제로 지난 2020년 여름 전북도의 기록적인 폭우에도 사방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는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예방시설의 탁월한 효과를 입증

한 바 있다. 도는 여름철 장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도심지역·주민생활권 등 산사

태 위험성이 높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타당성 평가, 동시서 모집 주민설명회 등 사전절차도 신속하게 이행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사방시설의 안전 점검을 추진해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조치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안전성 확보 및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하태영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태풍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여름철 장마기 이전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안전교육 등 현장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재해 없는 사방사업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양성빈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만들 것"

장수군수 선거에 나선 양성빈 더불어민주당 전라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양 부위원장)이 지난 21일에 이어 '농업·농촌 지원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두 번째 농업 공약의 주 내용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전 품목으로 확대, ▲유통 전문 공동사업단 운영 확대, ▲직거래 활성화, ▲찾아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확대, ▲농번기 마을 이불보 운영시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양 부위원장은 우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매년 50억씩 4년간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돈승 "인구 5만명 읍 육성으로 시 승격 기반 마련"

이돈승 완주군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인구 5만명 읍(邑) 육성을 통해 시(市) 승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23일 "봉동읍과 삼례읍 중, 향후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택과 집중으로 인구 5만명의 읍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10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제1항은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

확대해 중장기 먹거리 정책을 마련하고, 농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행정과 농협, 농민회 등 지역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촘촘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부위원장은 "군내 농업인들의 수익 향상을 위한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구상을 끝마쳤다"며 "주 공약으로는 오프라인 기부제 답례품 제공과 크라우드 펀딩 등이다"고 밝혔다.

이어, "미디어 지원 센터를 설립해 장수군 내 농업인 개개인의 브랜드화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빈 부위원장은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수군수의 첫 번째 과제"라며 "이를 위해 소득 안정부터 복지까지 모든 분야를 세심히 돌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365 쉼센터' 조성"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식공간인 '365 쉼센터' 조성 공약을 내놨다.

우범기 후보는 23일 '전문협담'(전주)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뽕나무, 음수대, 휴대전화, 충전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타 지자체의 택시센터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무척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 후보는 택시기사의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 안에 택시감차, 심야택시 5시간 할증제, 지자체 콜택시 앱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택시업계의 경영 활성화는 물론 근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기자

"청년 자치기구 신설·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만들 것"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시장 예비후보인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전주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청년창업 모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23일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리잡고 살아가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가야 하는데 지역의 현실은 취업할 만한 기업이 없어 안타깝다며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청년들의 입장에서 청년들의 삶을 바라보는 '청년자치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자치기구는 청년의 삶에 필요한 제도를 연구하고 제안과 동시에 선후배 간의 연대, 동종업계 간의 연대,

새로운 판로와의 관계 등을 통해 서로 도와가며 기업을 이끌어 가는 모임체 성격이라는 것. 그는 이 기구가 뿌리를 내리면 전주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 갈 차세대 청년들이 양성되면서 청년 창업의 다짐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만들어 청년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 전주시의 비어있는 공공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양질의 창업 교육, 경험, 프로그램 공유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성기자

"전북 빛낸 우수한 청소년 찾아요"

전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 후보자 모집

전북도가 제9회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바른 성장에 귀감이 되는 자를 포상·격려함으로써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발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35명(효행 3명, 선행 8명, 면학 8명, 예체능 8명, 국제화 4명, 장애 부문 4명)의 도내 청소년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자는 효행, 선행, 면학, 예·체능, 국제화, 장애 등 총 6개 부문에 각 1명씩이다.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오는 5월 전라북도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장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청소년상의 자격요건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상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3년 이내 기간 동안 관련 공적이 있는 자다.

추천기관은 시장·군수 및 각급 학교장, 대학 총장, 전북도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대표다.

후보자 신청은 4월 4일부터 11일까지다.

전북도 여성청소년과로 공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석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전북도를 빛낸 우수한 청소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23일 고군산군도를 찾아 '어촌뉴딜사업' 추진현장을 점검했다.

'어촌뉴딜사업' 현장점검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고군산군도 찾아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23일 고군산군도를 찾아 '어촌뉴딜사업' 추진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사업'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전북도는 22개소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너2구 어촌뉴딜 사업(2019~2021년)은 149억6천만 원을 투입해 방파제 연장, 어구보관 및 공동작업장, 어항시설 정비 등 10개 내역사업이 추진 중으로 4월에 준공 예정이다.

명도측 어촌뉴딜 사업(2019~2021년)은 명도와 방축도에 91억6900만 원을

투입해 어구·어망창고, 여객선 대기실, 삼문화센터, 어업인버터 리모델링 등 15개 내역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5월에 준공 예정이다.

도는 군산시로부터 어촌뉴딜 사업의 추진상황과 준공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사업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나해수 국장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어촌·어항 재생기반을 구축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전북도 자치경찰 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여성기관·단체, 아동 전문가, 교수 등 7명 위촉

자치경찰 발전방향 자문·의견제시 역할 수행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23일 전북도 자치경찰 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은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전문성과 풍부한 사회활동 경험을 갖춘 인사와 지역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출신 인사들로 구성했다.

이들 위원은 자치경찰사무외의 부합성,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현장 활동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성기관·단체 대표 2명, 경찰행정과 교수 2명, 아동 보호기관 대표 1명, 언론 출신 2명 등 총 7명(남성 4, 여성 3)이 위촉됐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결산·출생행복론을 위한 자문 역할 수행을 담당한다.

계 방안에 관한 사항 치안상황 분석 및 자치경찰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시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자치경찰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정책 발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들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자치경찰의 조정 역할 지역주민과 안전예방을 위해 통합시스템 개발 아동에 대한 예방 치안정책 등"을 제안하며 "새 정부 정책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현 자치경찰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정책 발굴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기자